

# 2학년 4반 오유진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흐리다 맑음

제목 : 자전거 탄 날

두 번째 수는 날은 나랑 동생이 목욕을 하는 날입니다.

따뜻한 물에 누워 있으면 포근해요.

샤워를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합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따뜻한 정식식사를 냅니다.

바람을 쐬러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요즘 날씨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너무 즐겁습니다.

동생도 타고 싶어서 난리를부리고 떼를 써요.

저는 워터안 두발 자전거를 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내 자전거는 동생에게 물려

줘야 해요. 주말이 그 날이 와서 한강으로

고고! 우리는 저녁을 먹고 우리 식구 모두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자전거타는 언니 오빠

들어 많았습니다. 한강 철교위에 지하철이

지나 가는 것이 보였어요. 낮에 보는 한강하고

밤에 보는 한강이 달라 보였어요. 사선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때는 어찌

러웠어요. 중간에 동생이 다리가 아프면서

나는 엄마에게 동생은 아버지한테 업혀서

와줍니다, 오늘 밤은 잠이 잘 올게 같아요